

세계 항만 리더 부산 집결… AI·탈탄소로 ‘새 150년’ 연다

BIPC 2026 역대 최대 규모 개최

공급과잉·회복탄력성 해법 논의
수소·암모니아 연료전환 전략 공유
지능형 자율운영 체제구축 본격화
북극항로·국제기구 협력방안 모색

전 세계 주요 항만 최고경영자와 국제기구 인사들이 부산을 찾았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탈탄소 전략이 담긴 미래항만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부산항은 새 150년을 내다보고 첨단미래항만 설계에 한창이다. 지난 19세기 ‘부산포’라는 명칭으로 개항한 지 150년이 흘렀다.

부산항만공사(BPA)는 15일과 16일 양일간 부산 동구 소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14회 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BIPC 2026)’를 개최했다.

행사는 ‘계획을 넘어 실행으로, 변화의 시대를 이끄는 혁신’을 주제로 열렸다. BPA 관계자는 “올해 행사에 개항 150주년을 맞아 역대 가장 많은 세계 주요 항만 CEO와 주요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운시장 전망을 비롯해 탈탄소, AI, 항만 안전, 북극항로 등 주요 현안



이달 15~16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4회 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

/BPA

을 논의하고 각 항만의 경험을 공유했다. 각국의 주요 연사들은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

엔스 마이어 국제항만협회(IAPH) 총재 겸 함부르크항만공사 사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그는 미래 항만의 경쟁력은 위기에도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에 달려 있다고 했다. 위험을 사전에 파악해 대체 시설과 운송로, 백업 시스템을 확보하고 평소 항만 간 신뢰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변동성 시대, 컨테이너 해운의 회복탄력성’ 주제의 세션 1에서는 건조한 수요 뒤에 다가오는 공급과잉 위험이 언급됐

다. 씨인터텔리전스의 앨런 머피 대표는 현재 신(新)조선 발주잔량이 기존 선대의 43%에 달한다며, 선박 해체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에즈 운하 운항까지 정상화되면 초과 선박이 최대 20%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이너리티카의 탄화주 대표는, 전쟁·고유가 속에도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이 6% 이상 증가한 배경으로 전기차·배터리 태양광 제품과 AI 데이터센터 관련 화물을 꼽았다. 다만 대규모 신조선 인도가 본격화되면, 이 같은 수요 증가만으로 선박 공급을 흡수하기 어려워 해상운임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로테르담항만공사의 비우더바인 시몬

스 사장은 ‘항만 탈탄소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한 세션 2에서 수소 인프라와 암모니아 연료공급 실증 및 녹색해운항로 추진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친환경 연료의 공급과 경제성·규제 차이 등을 주요 과제로 짚고, 항만 간 협력으로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상근 BPA 사장은 ‘디지털 전환을 넘어선 AI’ 주제의 세션 3에서, 데이터 통합 및 자동화 기반을 토대로 지능형 자율운영 항만으로 나아가는 부산항의 인공지능 전환(AI) 전략을 발표했다. 송 사장은, AI로 운영 효율과 안전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검증한 모델을 국내외 항만으로 확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행사 기간, 항만과 국제기구 간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도 마련됐다. 특히 국제항만협회(IAPH)와 아시아개발은행(ADB)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세션도 이어졌다.

송상근 사장은 “부산항의 새로운 150년을 여는 출발점에 역대 가장 많은 세계 항만 리더들이 함께해 더욱 뜻깊은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BIPC를 통해 세계 항만의 지혜를 모으고, 논의의 성과가 항만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metro

발전소 고유번호로 인허가·폐업 통합관리

기후부, 유관기관과 시스템 구축
전기사업 민원 8종 온라인 일괄 처리
한전 등 4개 기관 전력정보 연계

앞으로 발전소마다 자동차 번호판과 같은 ‘고유번호’가 부여돼 인허가부터 폐업까지의 모든 이력이 하나로 통합 관리된다. 그동안 여러 기관에 분산돼 지연되던 발전사업 관련 민원도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기위원회는 오는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4개 유관기관과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력 정보 연계·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전기사업법’(제24조의3) 이행을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전기사업 인허가·설비·검사·시장거래 등 관련 정보가 전기위원회, 지자체,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에 분산돼 있어 민원 처리 지연과 데이터 불일치 등 행정 불편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발전사업 허가,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 개시 등 8종의 주요 전기사업 민

원을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접수하고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특히 발전사업 허가 시 발전소별 고유번호(디지털 주소)를 부여해 신청, 착공, 검사, 운영 등 생애주기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력 관리할 방침이다.

김창섭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과 정보시스템 구축은 분산된 전력행정 제도를 정비하고 정보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전력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

송미령 장관, 농촌 창업 우수기업 현장 방문

정읍 ‘한영석의 발효연구소’ 찾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 창업·융합산업 부문에서 모범 사례로 꼽히는 기업을 찾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16일 전북 정읍 소재의 농업회사법인 한영석의 발효 연구소를 방문해, 연구소 등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이 업체는 전북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사용해 전통주를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이다. 지역농산물 사용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지역주민 고용도 확대하는 등 농촌 창업의 성장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농촌 창업·융합산업의 우수기업 사례다.

송 장관은 “청년 등과 기업이 농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뉴시스

새로운 창업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보육·투자·판로 개척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히 전통주를 지역 농업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 대표 K-푸드 핵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라고 고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무보, 첫 ‘온렌딩’ 도입… 中企 카자흐 진출 지원

개발은행에 4800만유로 금융 지원
현지 프로젝트 재대출 방식 활용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국내 중소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 국책은행과 손잡고 새로운 금융 지원 방식을 선보였다.

무보는 카자흐스탄개발은행(DBK)에 4800만 유로(약 750억 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무보가 해외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해 우리 기업의 현지 사업 대출을 돕는 ‘온렌딩(On-lending)’ 방식을 도입한 첫 번째 사례다.

온렌딩은 무보를 통해 글로벌 은행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DBK가 이 자금을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현지 프로젝트에 재대출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DBK는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우리 기업은 현지에서 보다 수월하게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오른쪽)이 지난 15일(화)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마라트 엘리바예프 카자흐스탄 개발은행장과 공동선언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무보는 지난 15일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개최된 ‘한-카자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최대 2억 유로 규모의 금융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카자흐스탄 내 한국 기업 참여 사업을 공동 발굴하고, 향후

추가 금융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앞으로도 해외 현지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우리 기업이 신흥시장에서 새로운 수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기대 취업박람회, 기업·기관 40여곳 참여

반도체·전자·자동차 등 채용상당
지난해 취업률 82.8% 4년제대 1위

한국기술교육대가 주관한 취업박람회에 대기업과 공공기관, 외국계기업, 중견·중소기업 등 40여 곳이 참가했다. 이 학교는 지난해 취업 경쟁력을 수치로 입증한 바 있다.

한기대는 16일 ‘2026학년도 한국기술교육대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에는 반도체·전자·자동차·기계·에너지 분야의 우수기업 및 공공기관이 대거 참가해 관심을 모았다.

한기대는 지난해 국내 4년제 대학 중 졸업생 취업을 부문 1위에 올랐다. 작년 12월 정보공시 기준 취업률 82.8%로 4년제 가운데 유일하게 80%대를 기록했다. 올해 박람회는 기업채용관과 졸업동문

멘토링관, 이벤트관 등으로 구성했다.

기업채용관에는 JB주식회사, KB오토시스, SFA반도체, 글로벌텍, 영림산업, 육군본부, 천안도시공사, 케이씨텍, 한국중부발전 등 33개 사가 참여했다. 각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기업 및 직무를 소개하고, 채용계획과 인재상, 직무별 필요 역량 등에 대한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또 졸업동문 멘토링관에는 LG전자, 국가철도공단, 스테코, 부영 등에 재직하고 있는 동문들이 직접 멘토로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은 본인의 취업준비 경험과 입사과정, 실제 직무 등을 후배들과 공유했다. 이벤트관에서는 학생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AI 포토부스, 취업타로, 퍼스널 컬러 진단, 이력서용 사진 촬영 등이다.

/세종=김연세 기자